



[라이프] 저출산·고령화시대 유업계 케어푸드 정조준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과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 노후시설 없애고 편의시설 확충...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화장실, 고객센터 등 편의시설 화재 예방시설, 안전시설 설치·보수

서울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여 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이다. 시는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센터, 물품보관소, 진입로, 통로 같은 편의시설과 소방 및 전기·가스 화재 예방시설, CCTV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시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son@

에 따른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서울시가 69% 이상 81% 이하, 자치구가 9~21%, 민간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고객센터 등을 설치·개보수하는 경우 시비 72% 이상 88% 이하, 구비 12~28%로 분담률이 조정된다.

우선 시는 사업 타당성·적정성 사전 검토와 시장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

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 대상이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자치구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내달 중 현장에 자문위원을 투입한다. 이들 전문가는 상인회,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고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자문

보고서에는 시장 현황·특성·문제점, 시장 환경 분석, 시장 규모·위치·물량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7월 15일 컨설팅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같은달 29일까지 전문가 자문 내용이 반영된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서(세부사업 계획서)를 접수한다. 이후 시는 현장 실태조사,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발, 시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개정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영세시장 자부담 감면 ▲5억원 이상 사업의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의무 시행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이다.

시는 영세시장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3%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5억원 이상 사업 신청 시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률이 영업 점포의 30% 이상인 시장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사업 평가 타당성과 선정 절차의 합리성을 높여 수혜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예방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1532억1500만원이 투입됐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73개 전통시장에 595억900만원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34곳에 822억43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재단은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은 매출이 증가해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특히 2020년에는 시설환경 개선사업 전체 예산의 평균 이상이 투입된 전통시장의 매출 증감률이 크게 상승했는데, 코로나 확산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고객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교육 플랫폼 '서울런' 무료학습 콘텐츠 확대

유명 인강 학습사이트 11→14개 진로·진학 설계 지원 프로그램도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학습 콘텐츠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유명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학습사이트(업체)를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새롭게 추가되는 사이트 3개는 이투스(교과), 해커스(어학·자격증), 윌라(독서)다.

민간 학습사이트의 콘텐츠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서울런 학습 놀이터'를 만들어 선보인다.

서울런 회원을 위한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

만나볼 수 있다. 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특강, OX퀴즈 같은 학습게임, 상담과 개인 기념공간 등을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서울런 학습 놀이터'를 만들어 선보인다.

생 250명,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3 및 N수생 300명을 각각 선발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한다. 1:1 진로설계 및 입시전략 컨설팅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회원은 12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4~5회 상담을 받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서울런 회원을 위해 개인의 관심분야와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직업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월 25일부터 서울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모기 유입, 정화조·맨홀 틈새 막아야"

서울기술연구원, 해충 방제대책 마련

서울기술연구원은 모기 등 해충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현장 점검을 벌여 저층 주택가 근접 정화조, 하수도 맨홀 덮개의 틈새와 외부로 노출된 환기통구의 틈을 통해 모기 등 해충이 다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틈새를 완전히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 방법이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화조 틈새 차단시 맨홀 1개소당 약 3000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서울시 전체 200인조 미만 정화조 2900여개에 조치를 할 경우 87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기존 방제약품 사용 예산의 82.6%를 절감할 수준이며, 교체 시에도 부담 없는 수준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해충 증가가 예상되는 장마철 이전에 저층 주택가 인근의 정화조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을 권고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외국아동 어린이집에 15억 지원

코로나로 운영난 겪는 어린이집 대상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아재원 어린이집 551곳에 15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19 사유로 아동들이

등원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영등포나 구로 등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시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펀셋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유아 1인당 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만 3~5세 1인 보육료 28만원의 절반인 14만원을, 민간 어린이집에는 만 3세 1인 보육료 47만1600원의 50%인 23만5800원, 만 4~5세 1인 보육료 45만1300원의 절반인 22만5650원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6일 (木) 음력 : 5월 18일

수도권 날씨 18~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6/27, 동두천 15/27, 가평 16/26, 파주 15/26, 서울 18/27, 양평 18/26, 안성 18/24, 수원 19/25, 용인 19/25, 평택 17/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송치... 여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 ▲FOMC 우려에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2011년 이후 최고치 /사진 뉴시스

▲바이든 사우디 방문에 인권 활동가 "배신 행위" 비판 ▲중국, 조셉 윤 미태평양도서국 특사 마셜제도 방문 경계



▲"10원이라도 아끼자"...가격 폭등에 브로콜리 줄기 뜯는 호주인들 ▲러, 전쟁 100일간 연료 수출로 126조 원 벌어들여...제재 무력화 우려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